“수녀들이 24시간 대기하며 환자 마지막 시간 돌본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전호성** 노브스튜디오

갈바리의원 오진복 원장이 식도암으로 입원 중인 환자(72)와 실내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갈바리의원 연혁:** 1965년 3월 15일 개원. 1978년 임종자 위한 호스피스 병실(2병상) 마련. 1981년 24시간 지속적인 호스피스 입원실 운영. 1990년 가정방문 호스피스 활성화, 어려운 환자들 무료 장기입원. 1999년 갈바리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2002년 전면 재건축. 2003년 갈바리 재가노인복지센터를 갈바리 가정봉사원파견센터로 개칭.

췌장암 말기인 어머니가 갈바리의원에 입원한 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는 자녀들(위). 어머니가 힘들여 쓴 메시지(옆)와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작성한 카드.

지난 10월 30일 오후 1시40분,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에 자리한 갈바리의원의 한 병실에서는 환자인 어머니(이현옥 · 85)와 자녀들의 '소원 들어주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머니는 열쇠고리에 자녀들을 위한 메시지를 남기고, 딸(김삼희 · 57)과 아들(삼호 · 55)은 어머니에게 카드를 쓰는 작업이었다. 프로그램을 이끄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가 소원을 쓰는 사이에 자녀들은 병실 밖으로 나가 카드를 작성했다.

췌장암 말기로 9월 7일, 6개월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어머니는 10월 중순 자녀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갈바리의원에 입원했다. 어머니는 기력이 너무 떨어져 대화는커녕 병상에서 일어나 앉기도 어려웠지만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소중한 시간임을 직감했는지 자원봉사자에게 몸을 일으켜달라고 부탁하곤 장남과 딸, 막내에게 사랑한다는 글씨를 힘들여 썼다.

편지를 다 쓴 자녀들이 병실로 돌아왔다. 먼저 딸이 '낳아서 길러 주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엄마 덕분에 편히 살았어요. 잘해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요. 잘 살게요'라는 편지를 읽고 어머니를 꼭 껴안으며 참았던 울음을 터트렸다. 어머니도 마주 안으며 "우리 딸, 사랑해. 건강하게 잘 살아줘"라며 딸의 등을 토닥였다.

아들도 '평생 내 걱정만 하고, 나만 잘 살면 괜찮다던 엄마. 엄마가 원하시는 교회 잘 다닐게요'라는 글을 읽은 뒤 냄새마저 기억하려는 듯 어머니를 부둥켜안으며 뺨에 입을 맞췄다. 어머니 또한 아들을 안고 "고마워, 고마워" 눈물을 흘렸다. 작업을 지켜보며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걸 보니 아드님과 따님에게 잘해 주셨나 보네"라던 자원봉사자도, 〈아산의 향기〉 취재팀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신적으로 평안한 죽음

"소원 들어주기 프로그램은 3년 전부터 매주 금요일에 진행하고 있어요. 기르는 꽃에 메시지를 남기는 원예작업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아우라(Aura)가 실재한다는 사실을 믿게 돼요. 작업에 참여한 환자뿐 아니라 그 주변까지 환해지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병실에 함께 있던 오진복(60) 갈바리의원 원장수녀의 말이다.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편안하고 평화롭게 이별할 수 있도록 돕는 갈바리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호스피스(hospice) 병원으로 불린다. 갈바리의원은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이 인간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도록 돌본다'는 호스피스의 본래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 50년 동안 애써 왔다.

무의미한 생명연장 대신 육체적 고통을 줄이면서 정신적으로 평안한 죽음을 맞도록 조력하는 갈바리의원은 1963년 호주 수녀 2명(에반젤리타, 크리스틴)이 한국에 도착하며 비롯되었다. 당시 춘천교구장이었던 토마스 퀸란 주교 초청으로 열악한 우리나라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한한 수녀들은 '마리아의작은자매회'(자매회, Little Company of Mary) 호주관구 소속이었다. 자매회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갈바리(Calvary, 히브리어인 골고다의 라틴어) 언덕까지 함께했던 어머니 마리아와 소수의 여성들처럼, 다양한 형태의 죽음에 직면한 이들과 마지막까지 함께하기 위해 영국 수녀 메리 포터가 1877년 설립한 천주교 수도회다.

1963년 지금의 자리에서 병원 건축이 시작됐고, 1965년 3월 15일 호주 자원봉사 의사 1명과 호주 수녀 4명(간호사 · 방사선사 · 검사실 기사 · 약사) 및 직원 22명으로 병원이 문을 열었다. 개원 후에는 강릉 지역의 노숙인과 무연고 환자들이 입원실이 모